

### "IMF후 용돈 줄어" 71%

청교련 중고생 설문

IMF 경제 한파는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와 자신의 '쓰쓰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청소년교회연합회(회장 현성섭)가 10~11월 서울 소재 중·고교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IMF 이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1%는 '용돈이 줄었다'고 대답했고, 50%는 '지출도 줄었다'고 대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쓰쓰미'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때 나의 소비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지금과 똑같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대답해 IMF 경제 한파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불교정서 배우는 전인교육 기회"

### 사찰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2백여곳서 예절·발우공양·참선 등 강좌  
사찰순례·문화재탐방 등 야외활동 확대

올해 실시되는 겨울불교학교는 사찰예절, 참선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사찰순례, 문화재 탐방 등 야외에서의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편성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불자들에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때 나의 소비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지금과 똑같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대답해 IMF 경제 한파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실시되는 겨울불교학교는 사찰예절, 참선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사찰순례, 문화재 탐방 등 야외에서의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편성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불자들에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때 나의 소비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지금과 똑같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대답해 IMF 경제 한파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학교 참가비는 서울 금강정사, 경기 신흥사 등 대부분 1인당 1만5천원~3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포면에서는 부산 삼광사의 불교학교가 5백여명의 어린이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울 화계사 등 나머지 사찰에서는 50~2백명이 참여하는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기간은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12월20일부터 1999년 1월 중순 사이며, 2박3일·4박5일 동안이다. 부산 보현선원의 경우 불교학교와 겨울수련회를 함께 실시한다. 보현선원은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밀양 여여정사에서 30명의

어린이불자들을 대상으로 △자연물이용 탐방기 △어린이 포행 △불교기초교리 강좌 등을 마련한다.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울산 정토사의 겨울 불교학교에는 영천 거조암 5백나한전과 대구 영남일보사의 신문 제작 과정을 둘러보고, △레크리에이션 강좌 △한글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울산 정토사 등은 발우공양용 불교프로그램을 어린이 정서에 맞게 진행한다.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성일선(경기 신흥사 주지)은 "어린이를 위한 겨울불교학교는 여름불교학교와는 달리 난방시설이 갖춰진 수련장이 필요하다"며 "알찬 내용의 불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단위 사찰차원의 정족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교학교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전인교육(全人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주부(신행담)

### 불성을 찾아가는길 ①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나는 이 진리만큼은 다 음 생애에서도 굳게 믿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교교시절의 일이다. 그 당시는 젊은 사람이 절에 간다고 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 때만 인지 주위 선배들의 경우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절은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란 것이 당시 내가 갖고 있던 불교관이였다. 특히 우리 가족의 경우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았던 터라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한 번은 친구의 소개로 절에 간 적이 있었다. 막상 절에 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혹시 주위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지, 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막상 절에 가보니 내 선입견과 너무도 달랐다. 아니 깜짝 놀랐던 것이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님들만 염불을 하고 신도는 절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젊은 목탁치는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림·문병성

### 눈썹밀고 두문불출 '심경' 암송

이상하게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법회장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언젠가 경험했던 일처럼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 후부터는 나도 모르게 토요일만 되면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법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법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듣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몇번을 사찰을 거닐어다 보니 서서히 법당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아무도 없는 법당을 거닐고 싶어서 친구들이 절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절도 해봤다. 서서히 불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법회장에 못들어가고 걸으면 법당 들어갈 때 슬퍼서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벽은 또 있었다. 열사람을 따라 하기는 했지만 동화되던 쉽지가 않았다. 합장은 알았지만 언제 절을 해야 하는지, 염불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답답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 법회 식순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 나를 절로 이끌었던 친구를 찾아가 법회에 대해 하나씩 물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싫어했던 나는 그 날부터 불교공부에 들어갔다. 대발심을 한 것이다. 마침 그때가 여름방학이었던지라 혼자 불교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법회 식순이 담겨있는 책자를 받아든 나는 우선 <반야심경>을 외우기로 했다. 그리고 이 경을 다 외우기 전에는 문밖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먼도날로 눈썹을 밀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키지는 않으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외우기 시작했다. 결국 일주일만에 <반야심경>을 다 외울 수가 있었다.

박정선 <경북 경주시 동부동>

특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 희망 선사

불교TV '자비의 손길'... 진잔한 감동 '호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50분까지 불자들의 어려운 모습을 소개하는 불교TV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비의 손길'은 5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사연들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 6회에 걸쳐 들려준 가슴 아픈 사연은 눈물 바다를 만들기도 했다. 눈에 종양이 생긴 오승욱(6),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김혜주(3),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 정선영(10) 등도 TV에 소개되자 이웃 복지관과 사찰의 신도회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충현PD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따뜻한 이웃들의 자비행사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 "가출청소년 만화방서 선도"

인천청교련 세미나... 시범사업 2곳 운영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 스님)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관에서 '만화방'이 청소년 피난처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지역 만화방 2백여곳과 청소년피난처(Safe Place, 이하 'SP')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미경(청교련 인천지부 사무국장)씨는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가정의 실직과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가출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SP 지정 및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가 최근 노숙자 58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개월 이상 노숙한 응답자 가운데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를 경험한 응답자는 22.4%,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된 응답자는 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아갈 곳 없는 청소년이나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지부와 인천만화방대연합회는 21일 국내 처음으로 인천 서구지역 만화방 21곳을 SP 시범사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전개한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4개 중립고 중고생 8백여명 수계식

"수계를 받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 동대부중, 동대부고, 명성여중, 명성여고 등 동국학원 산하 4개 중·고등학교는 12월 14일 동국대학교 중앙당에서 '불기2542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서울지역 합동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의 구현과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4개 중·고등학교 8백여명의 학생들과 각 학교 불교어머니회 회원들이 녹원(동국학원 이사장, 직지사 회주)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계를 수지하고 불명(佛名)을 받았다.

###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 31일 '어벤저' 무료상영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26일 11시 회관 1층 로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식을 봉행하고, 31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화 '어벤저'를 무료 상영한다. 상영은 오전 11시 및 오후 2시 두 차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음악·공연 연습실, 노래·비디오룸, 도서·정보·통신실, 극장, 상담실이 갖춰진 청소년 문화·수련의 복합시설이다. (02)646-6815

### 건강 365일 <40> 신이(辛夷)

중국 명나라때 진사급에 해당하는 직급인 거인(擧人)의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신해년(辛亥年) 어느날 그 거인은 콧병이 났다.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머리까지 아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러 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 봤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들은 그의 친구는 여행을 다니며 병을 치료해 줄 의원을 찾아 보라고 권유했었다. 거인은 집을 완쾌돼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느 번방의 소수 민족인 오랑캐 마을에 당도하였다. 마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 옥란화 꽃봉오리... 축농증 특효약

침 그곳에 의원이 있다기에 진맥을 청하였다. 그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히 진맥 한 뒤 약을 지어 주었다. 그 약을 먹자 거인은 그렇게 고생하던 콧병이 씻은 듯이 나아갔다. 약을 자제히 살피고 보니 자신의 고향에도 피어 있는 옥란화 꽃봉오리였다. 거인은 병이 완쾌돼 집으로 돌아오던 뒤 이듬해 봄에 옥란화 꽃봉오리를 따서 말렸다가 콧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거인은 신해년에 오랑캐 마을에서 이 약초를 발견했다 해서 약이름을 '신이(辛夷)'라 하였다. 콧병이란 축농증을 말하는데

한방에서 '신이'는 축농증의 특효약으로 쓰인다. 축농증이란 코안에 감기 바이러스균이 자리를 잡고 있어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여 콧물 재채기로부터 시작하지만 병이 깊어지면 축농증으로 진행된다. 몸이 허약해져 균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진 틈을 이용, 외부에서 균이 침범하는 것이 축농증의 발병 원인이다. 또는 대장에 이상이 생겨 병이 오는 수도 있다. 복용법: 복용량은 신이 8g과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악성 축농증인 경우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하며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한방 내 복용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02)762-5510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북한산 즐기기  
살은사 골짜기  
천년의 푸르름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리 춤추며  
백운대 해 아래 큰바위  
울굴을 열고 흐르는 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상사화 때 노닐며  
상사화 대웅전 트락 아래  
피릿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껴가고  
초겨울 바람  
살맛 스친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주·야 (02)634-4910

###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의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기 치료 능력, 기 응용 능력이 비법의 개발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사이 마카오(1865-1926)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감각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기 치료법, 기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각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기 치료능력, 기 응용능력이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 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 (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들의 의료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은 일하며 실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 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제와 암제계가 한 덩어리를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 등에 기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 장애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거리로,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정중으로 명박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범·매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박타를 경험하세요!  
● 아박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박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실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박타 코스는 종교학이론과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수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7일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박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추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해 한다.  
"아박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적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박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박타의 이름으로..  
- 아박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박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박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요.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박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리리 474(동도사 근처) 011)882-1149

### 동양철학 길잡이 - 사/주/박/사

위기가 남는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어 줄 오묘한 진리, 역학의 세계 역학의 등불을 사주박사가 들었습니다.  
동양철학 수천년의 寶藏들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의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사주박사 생활의 필수품 컴퓨터에서 역학의 진리를 펼쳐보십시오.  
▶ 사주박사는 출사(8년)의 노후를 바탕으로 한 가장 완벽한 역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 DM발송 및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찰 운영에 불필요 않습니다.  
▶ 정식 수백권을 참고하여 수록된 해설자료는 백과사전 49권 분량에 달합니다.  
▶ 사주원국(음신), 종합해설, 행운, 대운, 세운, 육효, 척전중시운, 택일, 궁합, 감명, 사명, 귀곡신명술, 기문, 둔갑, 오운옥기, 자미두수, 토정비결, 당사주, 민세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방 B/D 7층  
☎ 02)522-3268 FAX. 02)522-3263